

교통안전 '사각지대'... 뒷좌석·자전거 헬멧 착용률 낮아

광주 시민 4명 중 3명은 차량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 장구(헬멧)를 착용하는 비율도 30% 수준에 불과해 교통안전 의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광주 5개 자치구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나 택시 뒷좌석에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25%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29.5%를 밑도는 수치다.

자치구 별로는 동구 26.4%, 서구 21.4%, 남구 29.5%, 북구 22.9%, 광산구 25.2% 등이다.

같은 조사에서 광주지역 운전자서 안전벨트 착용률이 평균 94.8%라는 점을 감안하면 뒷좌석 착용률은 현저히 낮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13세 미만 어린이 6만원)이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앞좌석과 달리 뒷좌석 안전벨트에 대한 단속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데다, 시민들의 안전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전거를 이용할 때 보호장구인 헬멧을 착용하는 시민도 3명 중 1명 꼴에 그쳤다.

자전거 헬멧 착용률은 남구가 44.3%로 가장 높았고, 광산구 36.4%, 북구 32.8%, 동구 28.4%, 서구 21.1% 순이었다. 광주 평균 32% 수준으로 최고와 최저 간 격차가 23.2%포인트(p)에 달했다.

특히 각 자치구 모두 65세 이상 고령층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25%... 전국 평균 밑돌아 자전거 헬멧 32% 그쳐... 자치구 간 격차도 뚜렷

에서 자전거 헬멧 착용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출퇴근이나 레저 목적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빠른 속도와 긴 이동거리로 인해 사고 위험 인식이 높고 헬멧 착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장보기나 단거리 이동 등 생활형 이용은 착용 필요성 인식이 낮다는 점에서 고령일수록 착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나 도로를 주행할 때 인명보호 장구

를 착용해야 하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도 낮은 착용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중상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며 "뒷좌석 탑승자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는 사고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호 장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근 기자

중동전쟁 여파, 광주 대중교통 이용 쑥... 추가배차 미고려

3월 이용객 수, 시내버스 3.5%·지하철 6.45% ↑

지난달 초 시작된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를 우려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광주 시민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광주시와 광주교통공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광주지역 평일 기준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총 65만9210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2월 30만5977명, 3월 35만

3233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2월 30만2329명, 3월 34만1216명이 기록됐다. 이 중 3월 이용객 수를 비교했을 경우 1년 사이 약 3.5%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하철 승차 인원 수도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한 승차 인원은 일평균 4만

7207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같은기간 4만 8334명을 기록했다.

특히 3월의 경우 지난해 승차인원이 누적 151만210명으로 기록된 한편 올해는 9만여명(6.45%) 늘어난 160만769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수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볼때 시는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 일부가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원 기자

다만 대중교통 수요가 폭증하는 단계는 아닌 만큼 추가 배차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운용 중인 배차로 대중교통 수요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단계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안보 위기 대응에 시민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시행한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2부제로 대폭 강화된다. /이승원 기자

광산구, 이주민 맞춤형 민원지기 운영... 가족관계 업무 지원

민원지기는 태국·베트남 국적 이주민 각 1명을 채용해 출생·혼인신고 등 업무 통역과 신고서 작성·접수를 돕는다. 주 4일(월·화·목·금) 운영하며 요일별로 태국어와 베트남어 통역을 교차 제공

한다. 월·화는 오전(9시~12시) 태국어, 오후(1~4시) 베트남어로, 목·금은 오전 베트남어, 오후 태국어 통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광산구청 민원실

에서 운영되며 방문 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주민들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행 기자

광주 학생들, 오월버스 타고 민주화운동 체험한다

광주교육청 올해 버스 100대 운영

광주 지역 학생들이 '오월버스'를 타고 5·18민주화운동을 체험한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오월버스를 올해도 운행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인 오월버스는 학생들이 국립5·18민주묘지 등 주요 5·18 사적지를 둘러보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월버스는 지난해 50개 학교 2800여 명의 학생이 체험했으며 올해도 100대를 운행한다. 올해는 참여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만에 47개 초·중·고교가 신청하면서 조기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국립5·18민주묘지,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 상무관, 5·18자유공원, 전일빌딩245 등 주요 사적지를 탐방한다.

올해 첫 오월버스는 이날 광산중학교 2·3학년 학생 160여 명이 탑승해 국립5·18민주묘지, 전일빌딩245 등을 탐방했다.

광주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5월4일부터 24일까지 5·18 기념주간으로 지정하고 5·18 사적지 걷기 축제, 5·18 청소년 문화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염성호 기자

광주·전남 3월 '온난화' 지속... 9년 연속 평년보다 더웠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지난 3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며 9년 연속 온난화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3월기후 특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8.5도로 평년(7.3도)보다 1.2도 높았다.

특히 2018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으로 3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지역 내 온난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온 상승의 원인으로는 양(+)의 북대서양 진동과 동인도양 부근의 대류 억제 영향이 꼽힌다. 3월 산순과 중순에는 캄차카반도 부근의 블로킹 발달로 찬 공기가 유입돼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으나, 하순 들어 블로킹이 해소되고 고기압성 순환이 강해지며 기온이 크게 올랐다.

특히 3월 22~23일과 26~28일 사이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강수량은 90.8mm로 작년(44mm)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평년(79.7mm)과는 비슷했다.

해수면 온도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3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11.5도로 최근 10년 중 세 번째로 높았다. 남해의 경우 평균 14.7도로 작년보다 1.8도 높게 관측됐다.

정현숙 광주지방기상청장은 "기후 현상을 면밀히 감시해 이상기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광주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집중 점검... "안전사고 예방"

광주시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6일부터 17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3일 밝혔다.

광주시는 민관 20명으로 5개 점검반을 구성해 광주지역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65곳을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여부,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위생적 보관·진열 관리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등이 다.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5월이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어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수준) 위해요소 중점관리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공기판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5-18-0001호

해양수산부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